



신선한 바람이 분다. 르 페죄르 드 뱅 (Le Faiseur de Vin)

와인 컨설팅 회사 '르 페죄르 드 뱅'의 올리비에 도가(Olivier Dauga)와 까뜨린느 뵈샤(Catherine Boe chat)는 40세 이하의 젊은 포도재배자들이 저렴하면서도 과일 향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내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길쭉한 병 모양과 컬러풀한 '레이블이 매력적이던 'pour elle(그녀를 위해)', 레이블에 4~5개 나라의 말로 '예'라는 뜻의 단어를 배치한 와인은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즐거워졌다. 이 밖에도 블렌딩에서 소량으로만 주로 쓰이는 까베르네 프랑만으로 양조한 와인도 인상적이었다.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보르도 와인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시음와인

1. Bordeaux pour Elle 2002
2. Château Valrose 2002
3. Château Fleur Haut Gaussens 2003
4. Château Lamartine 2003
5. Château Roques Mauriac Cuvée Classic 2003
6. Château Roques Mauriac Cuvée Prestige 2003